

황교안 임명안 오늘 제출 ... '청문 정국' 돌입

병역면제·전관예우·정치적 편향성 등 쟁점 수두룩

새정치, 간사에 강경과 우원식 배치 ... 송곳 검증 별리

박근혜 대통령이 황교안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26일 국회에 제출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황 후보자의 자질과 도덕성 검증은 둘러싼 '청문 정국'이 이번 주에 본격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 관계자는 25일 "필요한 서류가 갖춰지는 대로 임명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며 "현재로서는 26일 임명동의안 제출 계획에 변동이 없다"고 밝혔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국회 인사청문특위는 임명동의안이 제출된 날로부터 15일(6월9일) 이내에 청문회를 마치고, 전체 국회 심사 절차는 20일(6월14일) 이내에 마쳐야 한다.

청와대는 총리 부재에 따른 국정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다음달 중순 박 대통령의 미국 방문 이전에 황 후보에 대한 인사청문 및 국회인준 절차를 완료하겠다는 생각이다.

새누리당 권은희 대변인은 이날 "새누리당은 총리 후보자의 국정운영 능력과 도덕성에 대해 국민의 눈높이에서 꼼꼼히 검증할 것"이라며 "아당은 공안정국이라는 트집잡기에만 매몰되지 말고, 정치공세성 청문회를 지양하고 청문회 본연의 취지를 살려 자질과 능력 검증에 집중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반면 새정치민주연합은 황 후보자를 '공안 총리'로 규정하고 강도 높은 검증을 예고했다.

새정치연합은 우선 대어 강경파로 분류되는 우원식 의원을 특위 간사로 정한 상

태이며, 26일까지 위원 6명의 인선을 마칠 계획이다. 특히 청문회 태스크포스(TF) 등 실무진을 중심으로 이미 황 후보자에 대한 각종 의혹과 논란에 대한 자료 수집에 나서는 등 사실상 검증 작업에 착수한 상황이다.

야당이 현재 중점적으로 들여다보는 주요 쟁점사항은 ▲두드러기 질환인 만성담마진에 따른 병역면제 적절성 ▲로펌 재직시 받은 거액수입료 등 전관예우 논란 ▲역시관·종교 편향성 논란 ▲정치적 편향성 논란 등이다.

여야는 청문특위 위원 구성부터 치열한 물밑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이미 새정치민주연합이 황 후보자가 법무장관 시절 벌여줬던 원세훈 전 국정원장 수사나 '성완중 파문'과 함께 병역 특혜, 전관예우 의혹 등을 들어 송곳 검증을 예고하고 있어 새누리당도 위원 선정에 각별한 신경을 쓰는 것이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일찌감치 '전투력'이 강한 것으로 평가받는 재선의 우원식 의원을 간사로 선임하고, 위원 역시 화력 좋은 의원들로 채우는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법조계 출신과 같이 '제적 사유'가 있는 의원들은 배제함으로써 최대한 각을 세운다는 게 새정치민주연합의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맞서 여야가 번갈아 특위 위원장을

맡는 관례에 따라 이번에 위원장을 선임해야 하는 새누리당은 중랑급 있는 4선급에서 물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자신의 의사와 관계없이 심재철, 이주영, 이한구, 정병국 의원 등이 오르내린다.

또 간사에는 검사 출신으로 이명박 정부에서 청와대 법무비서관을 지내고 최근 해외자원개발 국정조사에서도 간사를 맡았던 재선의 권성동 의원 임명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함께 역시 검사 출신인 재선의 박민식 의원을 거론된다.

한편 황 후보자는 이를 연승 종로구 통의동 금융감독원 연수원에 마련된 국무총리 후보자 집무실로 출근, 외교·안보, 경제, 사회분야 주요 현안에 대해 담당 실·국장 보고를 받는 등 청문회 준비에 속도를 냈다.



윤장현 시장-日 센다이시장, 우호협력 논의

윤장현 광주시장(사진)은 25일 일본 자매도시인 센다이시 오쿠야마 에미코 시장을 만나 환담하고 향후 양 도시 간 지속적인 우호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오쿠야마 센다이 시장은 면담에서 올해 센다이 국제하프마라톤대회에 광주시가 참여한 것과 윤 시장이 지난 3월 동일본 대지진 4주년 때 위로 서한을 보내준 것에 대해 깊은 감사의 뜻을 전했다. 윤 시장은 이에 대해 "동일본 대지진 경험을 살려 국제사회의 공통 과제인 방재부문에 센다이시가 선도적 역할을 하고 있는 점을 국제사회가 감사하고 있

다"고 답했다. 또 2015광주 U대회 홍보와 함께 센다이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도 요청했다.

광주시는 일본 센다이시와 2002년 자매도시 협약을 맺은 이후 매년 센다이 국제하프마라톤대회 선수 파견, 광주시-센다이시 축구경기 등 교류행사를 갖고 있다.

한편 윤 시장은 오는 26일 일본 가나자와시에서 열리는 유네스코 창의도시 개회식과 총회에 참석하고, 시장 유타카 의회에서 혁신 동반관계 수립이라는 제목으로 주제발표를 한 뒤 귀국해 27일에는 미래창조과학부 등 정부 부처를 돌며 내년도 국비확보 활동에 나설 예정이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황교안 국무총리 후보자가 25일 오후 서울 통의동 금융감독원 연수원의 후보자 사무실로 출근하고 있다. /연합뉴스

민선 6기 광주시 채무액 증가율 전국 최고

전년보다 1000억원 늘어

U대회 지원 예산 주원인

민선 6기 들어 광주시의 채무액 증가율이 전국에서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예산대비 채무비율 증가율도 최고였다. 이는 오는 7월 열리는 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 대회 개최와 관련한 지방채 발행이 주원인이라는 게 광주시의 설명이다. 전남도는 채무액과 예산대비 채무비율이 소폭 하락해 중간 수준에 머물렀다.

25일 행정자치부 등에 따르면 지난해 7월 출범한 민선 6기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의 채무잔액과 예산대비 채무비율을 분석한 결과, 광주시의 올 3월 기준 채무잔액은 9193억원으로 지난해 6월 기준 8205억원보다 988억원(12.0%) 늘었다. 광주시는 채무잔액을 지난해와 비교한 증감률에서 전국 17개 자치단체 중

가장 높았으며, 경기(3.0%), 서울(1.9%), 전북(1.1%), 대전(0.0%)순이었다. 채무잔액 증감률 조사에서 전남대비가 가장 많이 줄어든 자치단체는 경남으로 -26.3%였으며, 제주(-11.1%), 세종(-6.0%), 충북(-3.8%), 울산(-3.6%), 전남(-3.4%) 등의 순이었다. 전남도는 전년 1조5511억원에서 올해 1조188억원으로 363억원이 줄었다.

광주시는 예산대비 채무비율 증가율에서도 전년 22.26%에서 23.27%로 1.11% 상승해 서울(0.54%)과 함께 유일한 플러스를 보였으며, 전국에서 가장 높았다. 전남도는 -1.33%로 전국에서 중간 수준을 유지했다.

광주시의 한 관계자는 "올해에만 광주 U대회와 관련한 지방채를 600억원 넘게 발행하는 등 매년 U대회 관련 지방비 부담이 늘면서 채무비율이 다소 증가한 것"이라고 말했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회식 1차로 끝내기' 회식문화 개선 기여

전남도 공무원 설문조사

전남도의 '회식 1차로 끝내기', '음주 공무원 운전 쟁거주기' 등에 대해 대다수 공무원은 회식문화 개선에 기여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25일 전남도에 따르면 지난 1일부터 13일까지 분청 공무원 567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63%는 회식 1차 끝내기와 음주공무, 운전 쟁거주기, 부서별 문화의 날 운영으로 인해 회식문화가 개선됐다고 답했다.

응답자의 21%는 보통이라고 답했고, 개선되지 않았다는 응답자는 7%에 불과했다.

오후 6시 퇴근하는 가정의 날(수·금요일) 운영에 대해 응답자의 73%가 "잘 운영되고 있고 일과 가정의 균형을 이루는데

도움을 주고 있다"고 답했다. 또 응답자의 62%는 전문성과 자기계발을 위한 교육훈련에 자유롭게 참여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연가사용에 대해 63%는 "자유롭게 사용한다"고 답했고, 20%는 "보통이다", 8%는 "자유롭게 사용하지 못한다"고 답했다.

퇴근 후 저녁 시간 활용방안에 대해 가족과 함께 남아신도시로 이주한 직원들은 "가족과 함께한다"(36%), "자기 계획한다"(20%), "사무실 야근한다"(17%), "동료와 친교활동한다"(11%) 순으로 답했다.

전남도가 운영하는 '일 잘하는 노하우 배우기' 강좌에 대해서는 44%가 "도움이 된다", 34%는 "보통이다", 10%는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각각 답했다. /윤현석기자chadol@kwangju.co.kr

전남도, 공공시설 1100곳 안전진단 마무리

전남도는 25일 "도내 공공시설 98%개소, 민간시설 1만742개소 등 2만638개소 가운데 1100곳에서 문제가 발견돼 보수·보강 및 정밀안전진단 등을 조치했다"고 밝혔다.

전남도는 지난 4월 30일까지 두 달여간 전남도와 시·군, 전기안전공사, 가스안전공사, 대학교수, 안전관리자문단 등 공무원과 민간 전문가 5687명이 참여한 가운데 안전대진단을 실시한 바 있다.

이번 안전대진단에서는 건축·토목 구조물 등의 손상·균열·위험 여부와 각 시설물의 안전기준 적합성, 재난안전사고 발생 대응 매뉴얼 작성 및 활용, 안전관련 교육·훈련 이행상태, 법령·제도·관행 등 전반을 대상으로 했다. 안전진단에 참가한 전문가들은 저수지

복통 누수, 교량 받침장치 부식 및 파손, 건축물 기둥 및 보의 철근 노출·부식, 콘크리트 제방 일부 파손, 절개지 안전장치 미설치 등의 문제점을 발견해 경미한 사항 993개소는 현장에서 조치하고, 보수·보강이 필요한 829개소는 추경에 예산을 확보해 연차별 계획을 수립해 정비하기로 했다.

또 안전진단결과 E등급을 받은 무안군 해제면 연립주택은 하반기에 철거하고, 안전진단이 요구되는 271개소는 전문가를 투입해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할 방침이다.

또 글램핑장, 해상펜션 등 등록기준이 없는 천막형 구조물은 관리기준 마련 등 법령·제도상 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중앙 정부에 건의해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윤현석기자chadol@kwangju.co.kr

광주사회복지관 개관... 2만 복지인 숙원 해결

옛 보훈회관 리모델링

광주지역 2만여 사회복지인의 숙원인 광주사회복지회관이 문을 열었다.

광주시는 지난 22일 광주사회복지회관 대회의실에서 윤장현 광주시장과 차흥봉 한국사회복지협의회장, 문태환 시의회 부의장, 사회복지인 등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관식을 개최했다. 광주사회복지회관은 전체면적 914㎡에 지하 1층, 지상 2층 규모의 옛 보훈회관 건물을 리모델링했으며, 총 사업비만 11억 6000만원이 들어갔다. 회관에는 사회복지협의회와 사회복지

지사회회가 입주하며, 사회복지종사자 정보화 교육을 위한 전산교육장과 각종 행사장으로 활용할 대회의실을 갖췄다. 2만여 사회복지사들의 정보 공유와 교육의 장으로 광주시민의 다양한 복지 수요에 부응하고 품격 있는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윤장현 광주시장은 "복지회관에서 이룩하는 모든 일의 최종 낙차 지점은 시민복지, 시민행복이다"면서 "사회복지단체나 기관 간 정보공유 등 역량을 키워나가는 광주복지의 산실이 되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채희종기자 chae@kwangju.co.kr

2015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정 프랜차이즈 개발회사 / 2015 중소기업청 지정 창업학교 운영기관 / 2015 조선이공대 외식프랜차이즈 최고경영자과정 운영기관 www.startbiz.co.kr

광주, 전남에서 프랜차이즈 본사를 만들고 싶다면??

시스템구축에서 가맹점모집까지 소상공인창업전략연구소 조계현소장의 23년 노하우를 활용하십시오!

예비창업자를 위한 창업컨설팅도 역시! 예비창업자를 위한 창업컨설팅도 역시! 예비창업자를 위한 12단계 리스크 필터링시스템 자체개발!

조계현 소장
소상공인창업전략연구소

광주일보 창업칼럼니스트
조선대학교 지식경영연구원 전문위원
(사)한국소상공인컨설팅협회 부회장
(사)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자문위원
(사)한국신학협동연구원 이사
(사)지역발전정책연구원 부원장
(사)한국소상공인마케팅협회 자문위원
(사)광주전남프랜차이즈산업진흥협회 수석부회장

이제는 광주에서도 클래스가 다른 창업컨설팅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프랜차이즈 컨설팅

신규 또는 운영중인 업체의 프랜차이즈 사업화를 원한다면 프랜차이즈 컨설팅을 이용하세요!

- 프랜차이즈 아이템개발 및 보완
- 프랜차이즈시스템 구축
- 프랜차이즈 운영전략 수립
- 프랜차이즈 홍보마케팅

창업 컨설팅

창업을 준비하고 계시는 예비창업자는 안전창업 컨설팅을 이용하세요!

- 예비창업자 창업컨설팅
- 아이템 분석 및 점포개발
- 메뉴(상품, 서비스)전략구성
- 차별화 운영전략 및 홍보마케팅

경영개선 컨설팅

운영중인 업체가 매출이 부진하다면 경영개선 컨설팅을 이용하세요!

- 운영진단 및 대안전략 수립
- 메뉴개발 및 보완 인테리어 리모델링
- 원가절감 및 매출강화
- 직원교육 및 홍보마케팅

지역특화사업 컨설팅

지자체의 지역특화사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고 싶다면 지역특화사업 컨설팅을 이용하세요!

- 농식품 6차산업 컨설팅
- 정부 공모사업 컨설팅
- 지역특화상품 연구, 개발
- 협동조합, 농업법인 컨설팅

소상공인창업전략연구소
The small enterprise establishment strategy institute
부설 | 세종외식산업연구원

광주, 전남권 창업中心 - 소상공인창업전략연구소
광주광역시 북구 동림동 885-7 승림빌딩 2F

상담 대표전화
062) 515-0300